

구윤철 “현장 중심 사고로 혁신정책 발굴, 성과 행정 실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체인저스 오찬간담회

현장 체감 혁신정책 아이템 발굴
AI·디지털 기술 접목해 효율 제고
불필요한 형식 줄여 조직문화 개선
국민 신뢰 높이는 정책 집행 다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처 혁신을 위해 모인 직원들과 만나 ‘현장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혁신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했다. 또 부처 내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을 지원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관련 부서에 검토를 지시했다.

구 부총리는 18일 세종 기재부 청사에서 ‘제7기 체인저스’와 만나,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난 ‘업무 혁신화’를 강조했다.

이들은 부내 업무수행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꾸려진 청년층 직원이다. 체인저스는 협력(C), 조화(H), 균형(A)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기 체인저스’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혁신정책 아이템 발굴’ 및 ‘현장 중심 사고방식’을 강조했다.

그는 “기재부부터 혁신적으로 일할 필요가 있다”며 “형식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업무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AI 등의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접목시켜 보다 효율적으로 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

를 높이기 위해 모든 사고를 현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그동안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중심으로 부내 혁신을 이끌어온 체인저스가 ‘현장중심 문제 해결사’로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본격적인 초혁신경제 전환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체인저스가 부처 내 혁신을 넘어 국가 혁신을 위

한 혁신정책 아이템 발굴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혁신정책 아이템에 대한 실시간 의견수렴 플랫폼을 부처 내에 개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부처 내부망에서 운용 가능한 생성형 AI 솔루션을 개발해 달라”라는 한 직원의 제안에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화답했다.

자유토론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제안이 오갔다.

이 밖에 대면보고·대면회의 등 불필요한 형식을 최소화하고,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말미에 구 부총리는 “혁신을 선도하는 기재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체인저스를 시작으로 직원들과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가질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구 부총리는 지난달 하순 취임사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재부가 돼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그는 “기재부 직원들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에게 친절히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재부가 다른 부처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앞에서 다른 부처를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하기 보다 도와주고 밀어주는 부처가 돼야 한다”며 유관부처와의 융합을 강조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LG, 고연령 인력조정... ‘젊은 조직’ 속도

TV사업본부, 2분기 1917억 적자 기록
만 50세 이상·저성과자 대상 희망퇴직
최대 3년치 연봉·자녀 학자금 지원

LG전자가 TV 사업을 맡고 있는 MS(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사업본부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최근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AI(인공지능) 시대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재조정에 나선 것이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LG전자 MS사업본부는 구성원 중 만 50세 이상이거나 최근 3년 간 성과가 낮은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MS사업본부는 올해 2분기 1917억원의 영업손실로, 전년 동기 대비 주요 사업부 가운데 유일하게 적자 전환했다. 시장 수요 감소와 판가 인하, 중국 기업들과의 가격 경쟁으로 인한 마케팅비 증가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

/LG전자

이번 희망퇴직은 대상 직원이 원하는 경우를 전제로 진행한다. 근속 및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최대 3년 치 연봉에 해당하는 위로금과 자녀 학자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 관계자는 “젊고 힘 있는 조직으로의 변화에 속도를 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한

다”며 “이는 인력 선순환 차원의 취지”라고 전했다.

최근 50대 이상 직원이 증가한 가운데 희망퇴직을 통해 조직의 평균 연령을 낮춰 AI 시대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의도로 관측된다.

LG전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LG전자 50대 이상 정규직 임직원 수는 1만1993명으로, 전년 대비 1547명 늘었다.

LG전자는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도 희망퇴직 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희망퇴직 외에도 인력 선순환 차원의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만 50세 이상 구성원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브라보마이라이프 제도는 1년간 근무시간의 절반을 할애, 본인이 원하는 분야의 창업 및 기술교육을 제공한다.

/차현정 기자 hyeon@

포스코, JSW와 인도 오디샤주에 일관제철소 세운다

글로벌 철강 성장축 인도 시장 진출
양사 50대 50 동등한 지분 구조 추진

포스코그룹은 최근 인도 뭄바이에서 인도 1위 철강사인 JSW그룹과 본격적 사업 협력을 위한 주요 조건 합의서(HOA)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사는 HOA를 통해 지난해 10월 체결한 ‘철강 및 이차전지소재 분야 등 사업 협력에 관한 MOU’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일관제철소의 건설 지역, 생산 규모, 지분 구조 등 협력방안을 한층 더 구체화했다. 일관제철소는 석탄, 철광석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원료 조달 경쟁

력이 높은 인도 오디샤(Odisha)주를 주요 후보지로 선정해 공동 타당성 검토를 거쳐 최종 부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규모는 조강생산량 600만 톤으로 지난해 검토했던 500만 톤에서 확대했다.

이는 인도의 철강소비량이 최근 3년간 9~10%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신형 성장시장에 더욱 적극적인 시장 선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분은 양사가 각각 50%를 보유하는 동등한 파트너십 구조로 추진된다.

이번 HOA 체결을 계기로 양사는 세부 투자 조건 협의와 인허가 절차를 거쳐 본계약을 체결하고 일관제철소 건설

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고경영층이 직접 참여하는 정기 교류회를 신설해 사업 진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협력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사장은 “인도는 글로벌 철강 시장의 핵심 성장축으로 포스코그룹과 JSW그룹의 오랜 신뢰관계로 구축해온 파트너십이 인도 일관제철소 건설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며 “한국과 인도 1위 철강기업의 협력이 미래가치 창출은 물론 양국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롯데GRS, K-버거로 글로벌 시장 확대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튼점 개장
사전 오픈서 일 평균 500명 방문

롯데GRS의 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내 풀러튼 시티에 1호점인 롯데리아 풀러튼점 오픈식을 14일(현지 시각)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롯데GRS는 공식 오픈에 앞서 8월 11일부터 13일 약 3일간 4시간씩 진행한 사전 오픈을 운영을 통해 고객 반응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개점 전부터 긴 대기 행렬로 일 평균 500명이 방문해 미 현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어 공식 오픈일인 14일에는 롯데GRS 차우철 대표이사 및 신동권 사외이사 의장, 풀러튼 시티 프레드 정(Fred Jung) 시장, LA총영사관 조성호 부총영사 등의 인사가 참석하였으며, 미국 롯데리아 현지 메뉴 시식회 등을 진행했다.

오픈식 이전에도 오전 5시부터 대기한 첫 고객을 시작으로 매장 전체를 둘러싼 고객 대기줄이 형성되었으며, 선착순 고객을 대상으로 굿즈 상품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펼쳤다.

롯데GRS 차우철 대표이사는 “오늘은 롯데리아가 미국에 진출 했음을 국

내·외에 알리는 매우 뜻깊은 날”이라며 “아시아 시장을 넘어 미국의 소울 푸드인 버거에 롯데리아의 맛과 가치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미국 진출의 성공적인 안착에 의지를 피력했다.

롯데리아 미국 1호점인 풀러튼점은 2023년 10월 롯데GRS USA 법인 설립 이후 약 2년에 걸친 사업 준비를 하며 전체 약 65평 규모의 D/T 형태로 ‘The Original K-Burger’의 슬로건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의 의지를 담아 냈다.

입점한 지역은 풀러튼 시티 내 쇼핑 상권 지역으로 인근 백화점, 마트 등과 거주지 밀집 지역의 상권으로 글로벌 외식 기업이 밀집해 있다.

롯데리아 미국 1호점의 운영 메뉴는 K-버거의 특성을 미국 현지 고객에게 알리기 위해 대표 메뉴인 리아 불고기·새우, 비빔 라이스버거 등 총 5종의 버거 메뉴와 6개의 사이드 메뉴로 구성했다.

롯데GRS는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몽골 등 동남아 4개국 내 약 320여개 롯데리아 매장 운영과 더불어 지난 5일 말레이시아 파트너 사 계약 체결에 이어 미국 내 롯데리아 직원 1호점 오픈의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사업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내 풀러튼 시티 내 롯데리아 1호점 오픈식(왼쪽 세번째부터)LA 총영사관 조성호 부영사, 차우철 대표이사 및 프레드 정 풀러튼 시장, 신동권 사외이사 의장 등이 참석해 오픈 커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GRS